

“세속적인 명예는 없었어도 보람 있고 감사한 삶이었다”

글 김혜진 아산재단 작가 / 사진 민영주 조단스튜디오



복지관 이용자(김재근 · 69)를 진료하는 모습. 발달장애를 지닌 아이들의 재활이 전문이지만 지체 · 기능장애를 지닌 성인 이용자들도 그녀를 찾는다.

※ **이미경** : 1958년 경남 진해에서 5녀 중 장녀로 출생. 성신사대부고, 가톨릭대 의학과, 같은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1988년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입사(상임의사), 1992년 미국 연수, 1995년 제주재활의원 원장, 1997년~현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재입사, 진료실 상임의사로 근무 중. 국무총리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가톨릭 복지대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공로상, 아산상 복지실천상 등 수상.

“아버지는 내과 의사, 어머니는 약사였다. 부모님은 내게 항상 ‘나누고 살라’고 말씀하셨다. 내 생일이면 어머니는 고아원에 케이크를 보내셨고, 내가 장학금을 받으면 그 돈을 가난한 아이에게 전달했다. 부모가 생일파티를 해주고 장학금 없이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나와 달리, 세상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서울 고덕동에 자리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 중인 이미경(61) 상임의사는 자신이 가치지향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건 평생 나눔을 실천한 부모 덕분이라고 말한다.

아프리카 오지의 의사를 꿈꾸다

어릴 때부터 그녀의 꿈은 의사였다. 아버지를 봐도, 슈바이처를 봐도 의사는 ‘과정이 아름다운’ 숭고한 직업이었다. 자신이 가진 의술로 아픈 이들이 건강해지도록 돕고, 세계 어디를 가도 통용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직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의사가 아닌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결심은 가톨릭의과대학 1학년 때 살짝 방향을 튼다. 일명 ‘쥐 사건’ 때문이었다.

“1학년 때 무의촌으로 의료봉사를 갔어요. 시골학교를 빌려서 진료를 하는데, 사망에 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한국의 시골도 이런데 아프리카 오지는 얼마나 더할까? 환경을 견디기 힘든데 과연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줄 수 있을까? 결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분야가 장애인 치료였다. 가톨릭의대와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고, 그녀는 재활의학과를 택했다. 장애인들의 회복에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재활의학과는 요즘 의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공과목 중 하나지만, 1980년대 초는 재활의학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때라 당시 의사들조차 무슨 과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전공을 선택한 동기들은 인기 없는 재활의학과를 택한 그녀를 의아하게 여기며 “너는 왜 재활의학과를 택했니? 나중에 취직도 못 할 것 같고 미래가 안 보이는데…”라고 말했다. 그녀는 “손을 잘 못 쓰는 장애인이 열심히 훈련하면 스스로 먹을 수 있어. 2년 걸릴 일을 재활의학과 의사가 도와주면 두 달 만에 할 수도 있어.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도 마”라고 답했다.



우리 나이로 31세이던 1988년부터 진료실 상임의사로 일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거리감을 느낄까봐 흰 가운을 입지 않으며, 승용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소탈하다.

부족함 채우려 떠난 미국 연수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3년 차 때, 안용팔 교수를 따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으로 순회진료를 나갔다. 1982년에 개관한 복지관은 서울성모병원을 운영하는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가 수탁 운영하던 국내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었다. 복지관은 장애인에게 의료적인 부분만 제공하는 병원과 달리 부모 교육, 직업재활, 지역사회 연계 등 의료 외적인 서비스도 제공했다. 복지관에 상임의사가 있는 것도 특별했다.

안 교수는 순회진료에 참여한 재활의학과 학생들에게 “복지관엔 재활의학과 의사가 상주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의 전인(全人) 재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때부터 전인 재활에 눈을 떴고 복지관이 바로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1988년, 그녀는 복지관의 상임의사로 입사했다.

우리 나이로 서른한 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매일 복지관에 찾아오는 장애인들을 진료하다 보면 하루, 한 달, 일 년이 금방 지나갔다. 그런데 한계가 느껴졌다. 의대에선 주로 소아뇌성마비에

대해 배웠는데, 복지관 이용자는 뇌성마비만이 아니라 자폐 · 지적 · 언어 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다. 혼자 책을 보면서 공부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재활을 제공하기 위해선 의사로서 함께 일하는 치료사들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했다. 그녀가 복지관에서 근무한 지 4년이 되던 1992년 미국 연수를 떠난 이유다.

“복지관에선 휴직하지 말고 1년 정도 연수를 다녀오라고 배려 해주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배우려면 2년 이상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퇴직하고 복지관에서 4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연수를 떠났죠.”

미국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텍사스 등 여러 주에 있는 소아 재활병원과 발달장애 클리닉을 차례로 돌면서 소아재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봤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예상처럼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995년 귀국했을 때 복지관의 상임의사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다. 한 국립병원에서 제안이 왔지만 미국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적합한 재활의학을 공부하고 온 그녀는 이를 거절하고 장애인복지관을 함께 운영하던 제주재활병원 원장이 된다. 원장직을 수락한 조건은 “병원 환자뿐 아니라 복지관 이용자들의 진료까지 함께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제주도 생활은 복지관의 상임의사 자리가 비는 1997년까지 약 2년간 이어졌다.

그녀만의 특별한 진료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온 그녀는 연수 경험을 토대로 의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상담과 진단, 치료, 교육 등 재활치료의 전 과정을 팀을 이뤄 접근하는 ‘다영역 진단시스템’을 정립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가 되면 각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팀이 모여 판정회의를 한다. 판정회의는 내담자에 대해 각자 자기 영역에 대한 진단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재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전인 재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장애인이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단순히 기능만 좋아져서는 안 되고 심리 · 지능 · 언어 · 특수교육 · 직업재활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전인 재활입니다.”

그녀의 진료시간은 보통 한 시간을 넘긴다. 장애 당사자나 부모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장애의 원인, 특성 등 의료적인 부분과



지난해 8월 정년퇴임 뒤에는 월 · 수 · 목요일만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오전 9시~오후 6시가 근무시간이지만, 오전 8시쯤 출근해 밤 9시를 넘겨 퇴근하기 일쑤다.

그 외의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등록, 활동보조인 제도 등 장애 전반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다가 식사를 건너뛰는 건 다반사다. 면담이 어려운 부모들에겐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어 전화를 하는데, 상담이 새벽 1시까지 이어질 때도 있었다.

그녀는 “한 살 때 처음 만난 아이들이 지금 서른 살이 됐다”며 “그 부모들이 ‘선생님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할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영역 진단시스템 외에도 특정한 운동 패턴을 통해 뇌성마비나 운동기능 장애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보이타 진단법’, 장애아들의 부모를 아이와 함께 재활치료에 참여시키는 ‘영유아 조기 개입모델’, 장애아들의 시각 · 청각 등 감각조절 기능을 치료해주는 ‘감각 통합치료법’을 개발하고 널리 알렸다. 1992년에는 국내 최초로 장애 예방 비디오를 제작 · 배포해 장애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또 장애인들이 재활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재활치료에 관한 외국서적을 꾸준히 번역 · 감수하고 직접 책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발간한 책이 열한 권에 달한다. 그녀의 삶을 지켜본 의료계와 사회복지계 동료들은 “재활의학과가 개설된 초창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쉽게 대학병원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도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오랫동안 복지관의 상임의사로 헌신해왔다.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존경스러운 분이다”라고 말했다.

“세속적인 명예는 없었어도 보람 있고 감사했다”는 그녀는 2018년 8월 정년퇴임했지만 복지관의 요청에 따라 계속 근무 중이다. 복지관이 책정한 월급이 많지 않아서 다른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